

## 1 개요

본처의 아들을 못살게 군 계모의 계락을 지혜롭게 밝혀낸 며느리의 이야기이다.

## 2 내용

계모의 심술로 전처 아들이 자주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. 특히, 계모는 집안 재산을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전처의 아들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운다. 계모는 하인에게 전처 아들이 장가드는 날 신혼방에 들어가서 신부의 치맛자락 잘라 오라고 시킨다. 신랑은 밤중에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정신을 놓아버렸다.

신부는 그날 이후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고, 범인을 찾아 나섰다. 신부는 마침내 신랑 집에 당도하여 계모가 사용하는 궤 안에 감춰둔 치맛자락을 찾아내어 오해를 풀게 되었다. 신랑은 제정신으로 돌아오고, 계모는 쫓겨나게 되면서 집안이 평화를 찾았다.

## 3 특징

집안의 행복과 불행은 어머니의 역할에 달려있음을 전해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이다. 특히 계모의 전횡을 풍자한 「장화홍련전」, 「콩쥐팍쥐전」 등의 화소를 내포하고 있다.

## 4 핵심어

계모, 어머니, 후처, 족은각시, 큰아들, 족은어명, 신랑, 신부, 치마폭, 결혼, 점쟁이

## 5 원전 서지사항

계모의 모략(1)(김영돈·현용준·현길언, 《제주설화집성(1)》,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, 1985)

## 6 관련 자료

계모의 모략(2)(김영돈·현용준·현길언, 《제주설화집성(1)》,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, 1985)

다슴어명(김영돈·현용준·현길언, 《제주설화집성(1)》,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, 1985)